

김내성 소년탐정소설의 ‘바다’ 표상

김종수*

1. 서론
2. 김내성 소년탐정소설의 개관과 ‘바다’의 발견
3. 영해(領海)로서의 바다와 안정된 질서의 회구
4. 공해(公海)로의 진출과 제국주의의 시선
5. 설화적(說話的) 공간으로서의 바다와 금전적(金錢的) 환상의 실현
6. 결론

국문요약

한국 근대추리소설의 선구자로 알려진 김내성은 식민지시기부터 1950년대까지 많은 소년소설을 창작하였다. 그의 소년소설은 근대적 교육제도의 시행과 확대로 증가한 학생 소년독자층에게서 폭넓은 인기를 얻었다. 김내성의 소년소설은 통속적이고 상업적이라고 평가되어 그동안 연구사에서 소외되었으나, 김내성 작품의 체계적인 인식과 작가적 특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명되어야 할 연구대상이다. 따라서 본고는 김내성의 소년탐정소설에서 중요한 공간으로 설정된 ‘바다’ 표상을 분석하였다.

김내성의 첫 번째 장편소설인 『백가면』(1937)은 표면적으로는 소년 주인공이 부친과의 상봉을 위해 모험을 감행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으나 그 이면에는 국가 이익의 수호를 내면화하는 과정이 중첩되어 있다. 황해바다를 사이에 두고 적성국가 스파이들과 대결을 벌이는 소년들의 모험은 소년의 성숙으로 귀결되기보다는 국가이익의 수호를 완수하는 정치사회적 성격을 내포한다. 『백가면』은 황해바다를 국가 영토의 일부분으로 인식하고 혼란스러운 국제정세 속에서 안정적 질서를 회구하는 당시의 정치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백가면』이 안정된 질서를 염원하는 국내적 요구를 형상화하고 있다면 『황금굴』(1937)은 고아 소년들을 주인공으로 제국주의적 욕망을 실현하고 있다. 황해를 거점으로 인도양으로 진출하는 이 소설에서는 동양의 문명국인 인도를 바라보는 식민지 조선의 시선에서 제국주의적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인도를 이중적인 시각으로 타자화함은

* 한림대 강사

로써 정복의 논리를 내면화하도록 유도하는 『황금굴』의 기저에는 식민지후반 일본 제국주의의 신념이었던 대동아공영론을 발견할 수 있다. 식민지 시기 김내성의 소년탐정소설은 당시 소년독자들에게 흥미진진한 서사의 재미를 제공하면서 그 배면에 당시 일본 제국주의의 정치사회적 요구를 모험의 방식으로 실현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김내성의 소년탐정소설에 나타난 모험의 정치사회적 요구는 해방을 기점으로 소멸되고 만다. 제국주의적 환상의 몰락과 새롭게 재편되는 국제 정세의 긴박감 속에서 김내성은 『황금박쥐』(1955)의 황해를 설화적 공간으로 환원하여 소년소설의 창작이라는 대중적 요구를 충족하였다. 이제 그의 소년탐정소설에서 바다는 경제적 부를 실현하는 환상의 공간으로 기능할 뿐이며 소년들의 모험은 물질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것으로 변환된다. 여기에 사회적 요청에 복무하는 이상적 소년상을 조합함으로써 김내성의 소년소설은 당시의 소년독자층의 흥미와 시대적 요구를 절충할 수 있었다. (국문해석어: 김내성, 소년탐정소설, 바다 표상, 모험의 정치사회화, 설화적 공간, 황해, 제국주의의 시선, 대동아공영권, 인도, 『백가면』, 『황금굴』, 『황금박쥐』)

1. 서론

한국 근대 추리소설의 선구자로 알려진 김내성은 1930년대 후반 동화작가로도 입지를 굳히고 있었다. 해외문학과 출신인 송남훈은 당시 조선의 아동문학 작가를 개관하면서 『少年』, 『아이 생활』과 일간신문 아동란에 글을 자주 쓰는 작가 중 한 명으로 김내성을 언급했다.¹⁾ 하지만 동화와 소년소설²⁾이 분

1) “소년과 아허생활과 일간신문의 아동란에 글을 많이 쓰는 작가로는 김태오, 현덕, 함세덕, 전영택, 임원호, 최병화, 송창일, 강소천, 김내성 등이 있다.”-송남훈, 「창작동화의 경향과 그 작법에 대하여」, 『동아일보』, 1939.6.30.

2) 1924년 방정환이 『어린이』에 발표한 졸업의 날이 소년소설의 첫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소년소설을 연구한 논자들은 동화가 환상적·시적인 문학형식이고 시공을 초월한 낭만적 문학이라면, 소년소설은 동화와는 달리 현실적·구상적인 문학형식이라고 규정한다. 소년소설은 사건과 인물을 다룰 때 현실적인 인물과 사건을 다루며, 소년소설의 주인공은 독자들과 같은 또래인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고교에 재학중인 소년들이다. -김부연, 한국 근대 소년소설 연구, 건국대석사학위논문, 1995, 19-25쪽 참조. 한편 ‘소년’ 개념의 형성, 소년소설의 전개와 형성에 관해서는 김부연 「한국 근대 소년소설 연구」, 건국대석사학위논문, 1995; 전명희, 「한국 근대 소년소설 연구」, 영남대박사학위논문, 1998.; 심명숙, 한국근대아동문학론 연구, 인하대석사학위논문, 2002; 조은숙, 「한국 아동문학의 형성과정 연구」,

화되었던 1930년대 후반의 아동문학 연구사에서는 김내성을 간단하게 소개하는데 그치고 있으며), 김내성 연구사⁴⁾에서도 그가 쓴 소년소설들은 제대로 조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내성은 동경에서 귀국한 이듬해 1937년부터 사망한 1957년까지 지속적으로 소년소설을 발표하였다. 김내성의 작가적 특성을 고찰하고 그를 체계적으로 조명하기 위해서는 그의 소년소설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이다. 이에 본 글은 김내성이 발표한 소년탐정소설을 개관하고 『백가면』, 『황금

고려대박사학위논문, 2005. 참조

본 글은 소년소설 연구사가 설정하고 있는 ‘소년소설’의 개념을 따르며 여기에 ‘탐정’이 등장하고 있는 소설을 소년탐정소설로 설정한다. 김내성 소년탐정소설의 주인공들이 ‘소년탐정’은 아니다. 본 글의 연구대상인 『백가면』, 『황금굴』, 『황금박쥐』에서는 모두 탐정 유희란이 등장하는데 주인공 소년들은 유희란의 협조를 얻어 악당을 처치하고 목적을 실현한다. 이 과정에서 소년주인공들의 용기와 기지가 사건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김내성의 소년탐정소설에서 소년 주인공들은 유희란 탐정의 조수, 협조자이거나 유희란처럼 탐정이 되고 싶어하는 ‘예비탐정’으로 등장한다.

- 3) 1930년대 후반 소년소설을 개관하는 연구에서는 김내성의 『백가면』이 간략하게 소개되고 있으며(-김부연, 「한국 근대 소년소설 연구」, 건국대석사학위논문, 1995; 전명희, 한국 근대 소년소설 연구, 영남대박사학위논문, 1998.; 심명숙, 한국근대 아동문학론 연구, 인하대석사학위논문, 2002.) 1950년대 아동문학의 전개과정을 논의하는 연구에서는 김내성을 1950년대 통속·상업적 성격의 아동문학 작가로 분류하여 그 이름만을 소개할 뿐이다. -선안나, 1950년대 동화아동소설 연구, 성신여대박사학위논문, 2006. 아동문학 연구자들의 연구에서 김내성의 『백가면』이 주목받은 까닭은 연구자들이 소년아동잡지만을 연구대상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시 동아일보에 연재되던 김내성의 『황금굴』은 조명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 4) 김내성 소설에 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창식, 추리소설 형성기의 실상과 김내성의 『마인』, 『현대문학이론연구』7, 1997; 조성명, 「탐정소설과 근대성」, 『민족문학사연구』13, 1998.; 윤정현, 「김내성 탐정소설 연구」, 『한국문예비평연구』4, 1999; 정혜영, 「근대를 향한 왜곡된 시선-김내성의 「살인예술가」를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31, 2006; 정혜영, 「방첩소설 『매국노』와 식민지 탐정문학의 운명」, 『한국현대문학연구』24, 2008.; 최애순, 「1930년대 모험탐정소설과 김내성 『백가면』의 관계 연구」, 『동양학』44집, 2008. 김내성의 소년소설을 다룬 경우는 최애순의 연구가 유일하다. 그는 『백가면』을 모험탐정소설로 규정하고 세밀하게 분석하였다.

굴』, 『황금박쥐』를 연구대상⁵⁾으로 하여 이 소설들에 등장하는 ‘바다’ 표상을 분석하여 김내성의 작가적 특성을 고찰해보도록 한다.

2. 김내성 소년탐정소설의 개관과 ‘바다’의 발견

김내성은 대표작 『魔人』을 발표하기 전인 1937년에 두 편의 소년탐정소설을 발표한다. 그의 첫 장편소설인 『白假面』은 『少年』(조선일보사출판부 刊, 1937.6.-1938.5.)에 연재된 후, 1938년에 한성도서주식회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하였고 1946년에 재출간되었다고 전한다.⁶⁾ 같은 해 집필한 『황금굴』은 『동아일보』에 1937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재되었고 1944년에 조선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간되고 1945년 12월에 재출판되었다.⁷⁾

-
- 5) 김내성의 소년탐정소설 중 논의의 집중을 위해 번안소설을 제외하고 창작소설만을 연구대상으로 한정하였다.
- 6) 박진영, 김내성의 연보 및 작품목록, 『판타스틱』, 2009. 봄호, 167-183쪽 참조
 박진영의 이 글은 김내성 소년소설의 작품 연보를 확인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김내성의 첫 단행본 장편소설인 『백가면』이 실제로 한성도서주식회사에서 출판하였는지 의문이다. 실물을 확인하면 쉽게 확인될 문제이나, 현전하지 않는 듯 하다. 1938년 7월 1일자 동아일보의 “新刊紹介”란에는 『백가면』의 출판소식이 게재되었다. 이때 발행출판사는 제시되지 않은 채, 한성도서주식회사가 “총판매소”로만 나온다. “新刊紹介”에서 “총판”만을 제시한 경우 발행출판사와 총판매소가 대부분 달랐던 관행을 고려한다면, 『백가면』의 한성도서주식회사 발행은 재고를 요한다. 또한 당시 한성도서주식회사가 다수의 근대문학 작품을 출판하며 상업적 성공을 거둔 조선 굴지의 출판사였을 뿐만 아니라 이 회사의 중요한 사업 중 하나가 중소출판사의 총판을 대행하는 일이기도 하였음을 염두에 두면(김중수, 『일제강점기 경성의 출판문화 동향과 문학서적의 근대적 위상-한성도서주식회사의 활동을 중심으로』, 『서울학연구』35, 2009. 참고) 『백가면』이 한성도서주식회사에서 출판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1951년 平凡社 刊 『백가면』에 실린 김내성의 개작판 서문도 이 의문을 떨칠 수 없게 한다. 김내성은 이 서문에서 “조선출판사에 팔리었던 판권이 작자에게 돌아왔다”고 말하고 있다. 1936년에 설립된 조선출판사가 김내성의 『황금굴』을 출판했던 점을 염두에 두면 『백가면』이 조선출판사에서 간행되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김내성의 소년탐정소설이 발표되던 1937년은 조선에서 소년소설의 생산과 소비의 구조가 변환되던 시기였다. 출판시장에서 아동물의 발간이 급증하던 1920년대⁸⁾ 후반을 지나 1930년대 중반, 소년소설을 연재하던 아동문학 잡지의 판도에 변화가 생긴다. 1920년대 이후 카프와 연계하였던 아동/소년 잡지는 카프의 해산과 함께 1935년을 전후하여 대부분 폐간되고⁹⁾ 이를 대신해 『소년중앙』(조선중앙일보사 刊, 1935), 『소년조선일보』(조선일보사 刊, 1936-1940), 『少年』(조선일보사출판부 刊, 1937-1940)이 등장한다. 이 잡지들¹⁰⁾은 이전 잡지와는 성격이 달랐다. 이 매체들은 소년운동을 목적으로 활동

-
- 7) 1930년대 후반 김내성의 소년탐정소설은 대중적 인기가 높았다. 1930년대 후반 조선의 일간신문들이 상업화 전략의 일환으로 소설 연재에 힘을 쏟았던 점을 고려할 때, 1937년 『동아일보』가 김내성의 『황금굴』을 연재하였다는 점은 당시 김내성의 상품적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예이다. 또한 『조선일보』에는 자사 출판부에서 발행하는 『少年』을 광고하면서 김내성의 『백가면』을 강조하여 소개하고 있는 것 역시 김내성의 소년탐정소설이 당시 매체들에게 상업적으로 매력적인 존재였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김내성의 인기는 단행본시장으로도 이어졌다. 1940년 이후 조선에서 출판사업령이 공포되고 용지보급제가 시행되며 출판시장이 급격히 위축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출판계에서 김내성의 상업적 가치가 상당했음을 알 수 있다.
- 8) 천정환, 『근대의 책읽기』, 푸른역사, 2003, 488-489쪽
- 9) 『어린이』(개벽사 刊, 1923-34), 『신소년』(신소년사 刊, 1923-34), 『별나라』(별나라사 刊, 1926-35) 등이 1934-1935년 사이에 폐간된다. 일제의 탄압이 주된 원인이었으나 1920년대 후반이후 지속되어 왔던 계급주의 아동문학의 모순때문이기도 했다. 일제의 탄압 때문에 조선에서 이전까지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소년운동은 1937년 15회 어린이날을 기점으로 거의 소멸되고 소년운동과 연계되어 활발하였던 사실주의적 경향의 아동/소년 잡지들이 대거 폐간된다. -심명숙, 한국근대아동문학론 연구, 인하대석사학위논문, 2002. 62쪽.
- 10) 아동잡지들의 잇따른 폐간 이후 조선의 소년들은 일본에서 발행된 아동소년잡지를 주로 찾았다. 당시 잡지 『三千里』에서는 아동과 소년의 읽을거리가 필요함을 역설하는 기사가 실렸다. “아동독물로는 요사히 찍으나 쓸쓸하고 한적한 기분이 떠돌고 있다. 뭇 해전까지는 어린이니 新少年이니 별나라니 하며 여러 가지 조흔 아동독물들이 만히 나오느니 요사히에 와서는 이 방면의 서적이라고는 아히생활 이외에는 이런종류의 책들을 차저볼수조차 업는 현상이다. 그런 관계로 소년들은 서점에들어오면 으레히 현해탄을 건너온 그림책을 뒤지는 현상으로 이 방면에 대한 일반의 관심이 너무 적은 듯하다”. 書籍市場調査記 漢城 以文 博文 永昌 등 書市에 나타난, 『三千里』7권9호, 1935.10. 139쪽. 소년독물 시장의 새로운

하던 잡지들과 달리 ‘독자’의 요구에 호응하는 창작·출판활동을 전개하였다. 연령별 특징을 고려하여 편집방향을 정했고 작가들도 작품을 쓸 때 독자연령에 맞춰 흥미를 고려하는 일이 정착되었다.¹¹⁾

“나는 여러분이 슬프고 눈물나는, 그런 불쌍하고도 가련한 이야기보다도 용감하고 무시무시하게 무섭고 자릿자릿하게 마음이 안타깝고 양손에 굳은 땀을 쥐여가면서 읽어야 할, 그런 이야기를 더 좋아하는 줄로 믿고 다음과 같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¹²⁾

인용문은 『백가면』의 첫 문장이다. 1920년대 소년소설이 애상적이고 감상적인 분위기를 주조로 하였고 1930년대 소년소설이 계급적 모순을 극복하려는 소년의 투쟁의지를 형상화하였다면¹³⁾, 1937년 김내성의 소년탐정소설은 공포, 걱정, 흥분의 감정으로 구성된 ‘재미’를 강조한다. 재미의 강조는 김내성만의 개성이라기보다는 1937년에 창간된 『少年』에 게재된 소년소설의 공통적인 특징이기도 하였다.¹⁴⁾ 1930년대 후반 『少年』의 매체적 특성은 소년들의 호기심과 감정을 자극하는 것이었으며 『少年』의 실제 소년독자들에게 호소력이 있었다.¹⁵⁾

변화를 예고하는 기사인데, 당시 이같은 분위기에서 새로운 소년잡지 『소년중앙』, 『少年』, 『소년조선일보』가 창간된 것이다.

- 11) 심명숙, 「한국근대아동문학론 연구」, 인하대석사학위논문, 2002., 63쪽. 참조
- 12) 김내성, 『백가면』, 평범사, 1951, 9쪽. 이하 이책에서 인용시 인용문에 쪽수 표시.
- 13) 전명희, 「한국 근대 소년소설 연구」, 영남대박사학위논문, 1998, 43-84쪽.
- 14) 최애순, 「1930년대 모험탐정소설과 김내성 『백가면』의 관계 연구」, 『동양학』44집, 2008. 7쪽. 참조
- 15) 1930년대 후반 『少年』의 상업적 성공에 대해서는 윤정원, 「한국근대정기간행물에 관한 서지학적 연구:1889-1945」,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참조 한편 『少年』의 상업적 성공에는 적극적인 신문 광고도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백가면』의 첫 회가 게재된 1937년 6월호 『少年』 광고에서 김내성 소년탐정소설은 사회적 관심요소와 연관되어 홍보되고 있다.
“白白敎와 한속? 鎭路복판에 나타난 白假面 姜博士를 밑에 잡아실고 三清洞쪽으로 사라지자 自動車로 그 뒤를 쫓는 姜水吉, 朴大準의 두 소년! 朝鮮의 처음보는

『少年』의 예처럼 1930년대 후반 아동잡지의 성격 변화는 정치·출판문화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수요층의 확대에 견인된 것이기도 하였다. 1935년 이후 식민지 조선에 재학중인 조선인 초중등학생은 100만 명을 넘어섰으며 1941년에는 200만명을 넘어섰다.¹⁶⁾ 취학률의 증가와 그에 따른 문자보급률의 상승은 소년을 대상으로 한 인쇄매체의 수요와 직결되었으며 당시 적극적인 소비층인 소년 독자들¹⁷⁾의 이해와 요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인쇄매체가 필요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김내성이 28세의 나이로 귀국하였던 1936년 즈음 조선의 아동문학계는 사실주의적 경향의 아동 잡지가 쇠퇴하고 소년독자를 상대로 한 대중적 매체들이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취학아동의 급증에 따라 소

大探偵冒險小説”(『조선일보』, 1937년 5월 13일자 4면 『소년』 광고. 이 광고에서 는 『백가면』을 1937년 조선을 발각 뒤집어 놓은 엽기적인 사건인 ‘백백교’와 연결하면서 대중적 호기심을 자극한다.

- 16) 『少年』이 창간되었던 1937년을 전후한 시기 각 학교에 재학한 조선인 학생의 총 수는 1935년에 초등교육기관 973,749명, 중등교육기관 46,454명이었고 1941년 통계에는 초등교육기관 재학생 수는 1,923,667명, 중등교육기관 86,906명이었다. 일제 식민지시대 초중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수는 1945년 해방을 맞이할 때까지 계속 증가한다.

연도	조선인 아동의 취학률
1912	2.2%
1919	3.9%
1925	16.2%
1935	25.0%
1941	45.8%

옆의 표는 일제 식민시대 조선인 아동의 연도별 보통학교 취학률이다. 합방이후 4차례에 걸친 조선교육령을 공포한 총독부의 시책에 따라 조선인 아동의 보통학교 취학률은 증가한다. 식민정책에 동원할 수 있는 황국신민으로 사회화하기 위한 초보적 교육의 필요성이 취학률의 증

가를 불러왔던 것이다. 여기에 학력과 학벌이 사회적 위계구조를 형성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고착되면서 조선인은 학교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오욱환, 『한국사회의 교육열:기원과 심화』, 교육과학사, 2000. 215쪽.참조. 이 같은 취학아동의 급격한 증가는 소년잡지와 소년독물 수요 증가의 직접적인 이유였던 것이다.

- 17) 최배은의 분석에 따르면 1924-1927년까지 『어린이』의 주독자층은 13-18세(82%)의 소년들이었다. 최배은, 「한국 근대 청소년소설의 형성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27집, 2005, 370쪽. 참조. 이들의 흥미와 요구에 부합하려 노력이 아동 소년잡지의 변화를 견인하였던 것이다.

년층의 흥미와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소년소설의 수요가 증가되었던 것이며 이같은 조선의 출판시장에서 김내성의 작품은 수요의 요구에 부합하였다.¹⁸⁾ 변장, 추격, 암호풀이 등으로 이루어진 긴박한 구성과 이국의 낯선 풍경, 바다 건너 존재한다는 보물섬의 신비, 학교에서 배운 과학 지식과 지리 상식의 등장은 식민지 시기 근대교육을 받는 소년독자들을 사로잡았다.

1930년대 후반 『백가면』과 『황금굴』을 발표하여 조선의 대표적인 소년탐정소설가로 입지를 굳혔던 김내성은 해방 후 소년소설계에서 더욱 빛을 발하였다. 1948년 7월에 창간되어 한국전쟁이 발발할 때까지 발행되었던 『少年』(文化堂 刊)에 『비밀의 가면』(『철가면』의 번안소설, 1949.3-11)과 『쌍무지개 뜨는 언덕』(1949.12-1950.6.)을 연속적으로 게재하였고, 『걸리버 여행기』의 번안인 『꿈꾸는 바다』는 『새벗』(대한기독교서회 성서교재간행사 刊, 1952.7-1953.2)에 연재하였다. 그리고 1952년에 창간된 『학원』¹⁹⁾(학원사 刊)에는 『검은별』(*Black Star*의 번안소설, 1953.9-1955.2.), 『황금박쥐』²⁰⁾(1955.4-1956.5), 『도깨비 감투』(1956.7.-1957.4. 김내성 사후(57년 2월) 염재만이 이어서 집필)가 연이어 연재되었다.

해방과 한국전쟁을 겪으며 한국사회의 취학인구는 급격히 증가하였고²¹⁾

18) 김내성이 일본에서 귀국한 다음해(1937년)에 쓴 첫 장편소설이 소년탐정소설이라는 점은 에도가와 람뽀의 소년탐정소설인 『괴인 20면상』(1936)의 유행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 생각한다. 김내성이 에도가와 람뽀로부터 문학적 영향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조성면, 「탐정소설과 근대성」, 『민족문학사연구』13, 1998, 351-352쪽. 참조

19) 1952년 11월 대구에서 창간된 잡지 『학원』은 1950년대 최대 베스트셀러였다. 『학원』 창간 1주년 기념호는 3만5천부를 발행하였고, 1954년 7월호는 8만부를 발행했다. 6.25 직후 어려운 형편에 중고등학생 잡지로서는 상당히 많은 부수이다. 이 무렵 『동아일보』가 8만부를 발행한 것을 제외하고, 대부분 신문이 2-4만부를 발간했음을 고려하면 그 인기가 실로 대단했음을 알 수 있다. -김영희, 제1공화국 시기 수용자의 매체 접촉경향, 『한국언론학보』, 47권 6호, 2003. 312쪽.

20) 『황금박쥐』는 1957년 1월에 학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

21) 제1공화국 시절 의무교육제도가 본격적으로 정착되며 취학률은 90%대에 육박하였다. 휴전이 되자 정부는 ‘의무교육 완성 6개년 계획(1954-59)’을 입안하여 의무

전후 삭막한 사회분위기 속에서 별다른 여가활동이 없었던 당시 학생들에게 소년잡지와 소년소설은 학생층의 정서, 교양, 여가활동의 주대상이었다. 식민지 시기 후반에 소년탐정소설 작가로 이름을 알렸던 김내성은 해방 후 1950년대 소년소설 시장에서 여전히 인기있는 소설가²²⁾였던 것이다.

김내성은 193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 한국의 의무교육제도가 정착되는 기간 동안 학생수의 급격한 증가와 맞물려 형성된 독서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인기를 얻으며 소년소설을 발표했다. 김내성의 소년소설은 1970년대까지 재출간²³⁾되면서 학생필독서로서 인기를 얻었다. 여기에는 1950년대에 학창시절을 보낸 세대가 그들의 유일한 여가생활이었던 독서체험에 대한 향수가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김내성의 소년탐정소설은 근대교육의 세례를 받는 소년독자들의 기호에 부합하는 흥미요소를 두루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근대교육의 시혜자가 요구하는 이념을 포섭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중적인 인기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었다. 즉 소년독자들은 감각적인 재미를 만끽하면서도 소설이 제시하는 표면적인 주제의 이상성(理想性)으로 그 재미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기성세대는 흥미요소를 활용해 교훈적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 김내성 소설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였던 것이다.

김내성 소년탐정소설이 구현하는 이같은 서사적 흥미와 이상적인 주제의 결합은 ‘바다’라는 공간을 설정함으로써 가능하였다.²⁴⁾ 그의 소년탐정소설은

교육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고 그 결과 1954년에 취학률은 82.5%, 1959년에는 96.4%였다. 학생수로 따져본다면 해방된 1945년에 1,366,024명이던 초등생 숫자가 1954년에 2,678,374명으로 1960년에 3,621,269명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윤중주, 해방후 우리나라 인구 변동의 사회사적 의미, 『인구문제논집』 역사비평사, 1998, 52쪽. 참조

22) 해방 전 발표했던 『백가면』이 한국전쟁기인 1951년 간행(평범사)되어 1952년에 재판을 찍었다. 박진영이 작성한 연보에 따르면 『황금굴』(1945년 12월 재출간도 해방 후 지속적인 인기를 누렸다. 해방 후부터 1957년 사망 전까지 소년잡지에 연재한 소년소설들 모두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

23) 필자가 확인한 바로는 김내성의 『황금굴』과 『검은별』이 포함된 <한국소년소녀추리모험소설선집>이 아리랑사에서 1973년에 간행되었다.

바다를 배경으로 사건의 갈등이 심화되고, 바다에서 갈등이 해소되며 희망을 발견하는 결말구조를 공통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바다로의 모험’은 근대 교육 제도로 훈육되는 소년들의 심성을 자극하였고, 혼란한 격변의 시기에 정치 사회적 요구를 실현하는 데에도 효과적이었다. 그의 소년탐정소설에 등장하는 ‘바다’는 단순한 자연물이나 지질학적 배경이라기보다는 정치사회적 공간인 것이다. 따라서 그의 소설에 나타난 ‘바다’ 표상을 논구하는 작업은 김내성 창작방법의 특징과 작가의식을 규명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해 줄 것이다.

3. 영해(領海)로서의 바다와 안정된 질서의 회구

『백가면』은 용감한 소년 주인공을 내세워 소년독자들의 호기심과 흥미를 자극하는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다. 백가면의 변장과 속임수, 백가면의 예고 편지, 자동차 추격전, 과학상식으로 설명되는 “무서운 기계”의 발명, 이 기계를 노리는 스파이²⁵⁾, 비밀수첩과 암호풀이 등 『백가면』은 10대 소년들의 지적 관심에 부합하고 그들의 호기심을 충동할 모티프를 고루 갖추고 있었다. 이같은 모티프를 활용해 형성하는 『백가면』의 서사적 논리는 표면적으로 납치된 아버지를 구출하는 데에 맞춰져 있다.

주인공 소년들은 아버지를 구출하기 위해 백가면과 추격전을 벌이고, “무

24) 『몽테크리스토 백작』의 번안소설인 『진주탑』(1947), 『매일신보』에 연재한 『태풍』(1942), 『신시대』에 연재한 『매국노』(1943)도 문물의 교류와 갈등이 내포된 공간으로서 바다, 항구를 배경으로 한다.

25) 정혜영과 최애순의 논문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듯이 1935년을 기점으로 당시 조선에는 ‘스파이’에 관한 담론이 신문과 잡지에 자주 소개되었다. 1937년에 발표된 『백가면』에 스파이가 중요한 소설적 모티프로 활용되고 있을 만큼 스파이에 대한 대중적 인지도는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1930년대 중후반 스파이 담론의 유행과 관해서는 정혜영, 방첩소설 매국노와 식민지 탐정문학의 운명, 『한국현대문학연구』, 24, 2008. 281쪽, 최애순, 1930년대 모험탐정소설과 김내성 『백가면』의 관계 연구, 『동양학』 44집, 2008., 10쪽.

서운 기계”를 탈취하려는 스파이들과 대결한다. 1930년대부터 ‘모험’을 다루는 소년소설²⁶⁾이 서사적 긴장을 유지하기 위해 ‘구출’의 모티프를 활용하였지만, 『백가면』은 구출의 대상이 ‘아버지’라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납치된 아버지를 구출하는 소년은 혼란스러운 가족의 질서를 회복하는 주체이며 그에 따라 소년의 긍지와 자부심은 극대화한다.²⁷⁾ 그리고 소년들은 추격전의 와중에서도 집에 있는 어머니에게 현재적 상황을 설명하는 편지를 보낸다²⁸⁾는 점을 상기한다면, 소년들이 희망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위협에 빠진 아버지를 구출하고, 염려하는 엄마를 안심시키는 소년은 가족의 주체로서 ‘가족의 안정’을 희구하는 것이다. 소설의 결말은 소년들의 바람대로 모든 것이 성취된다. 특히 대준이가 아버지와 해후하는 설정은 안정된 가정을 염원하는 소년들의 심리를 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대준은 10년 전에 아버지와 이별하고 생사를 알지 못한 채 살아왔다. 대준은 강영제 박사를 납치한 백가면을 추격하다가 백가면이 자신의 아버지 박지용임을 알게 되고 강박사의 구출과 함께 아버지와 자연스럽게 상봉하게 된다. 납치된 아버지를 구출하고, 생사를 몰랐던 아버지와 상봉으로 마무리되는 이 소설은 혼란스러운 사회적 격변의 시기에 안정된 가정의 염원을 표면적인 주제의식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납치, 추격, 변장의 흥미요소가 형성하고 있는 소설적 결말은 아버지와 해후로 마무리되지만 이 결말의 전개과정에서 국가의 이익을 내면화

26) 곡마단에 끌려간 남매가 주인공인 방정환의 7·7단의 비밀(1931)에서는 오빠가 여동생을 구출하는 이야기로 긴박감을 형성하고 있다. -전명희, 한국 근대 소년소설 연구, 영남대박사학위논문, 1998, 55-56쪽.

27) 더구나 스파이들이 노리고 있는 수길의 아버지 강영제 박사는 “옷턱 아래턱 할 것 없이 허연 수염이 길게 난”, “六十이 가까운” 노인의 모습으로 등장한다. 육체적으로 노쇠한 아버지를 구출하는 10대 소년들은 부양의 의무를 실천하는 청년처럼 보인다.

28) 수길은 백가면을 추격하며 아버지의 납치소식을 알리기 위해 엄마에게 편지를 보내고 아버지를 구출하기 위해 여행을 떠난다고 소식을 알린다. 수길은 항상 데리고 다니는 비둘기의 발에 묶어 엄마에게 편지를 보낸다.

하는 서사적 논리가 『백가면』에는 결합되어 있고 그 논리의 형성이 “황해바다”를 경계로 구현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백가면』의 중심 사건인 강영제 박사의 납치는 그가 발명한 “무서운 기계”를 둘러싼 국가간의 갈등 때문에 생겨났다. 그가 발명하고 있는 거대한 전기자석 기계는 전세계가 두려워하는 발명품으로 “이 무서운 기계”가 발명되면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재산과 그들의 왕좌를 일조일석에 물거품과 같이 만들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 파견된 스파이들²⁹⁾ 경성에 잠입, 강박사의 비밀수첩을 빼앗고 그를 납치하려고 하는 것이다. 악당인 줄 알았던 백가면은 사실 강박사를 스파이들로부터 보호하는 애국적 인물이었다. 공포의 인물인 백가면과의 추격전으로 전개되던 소설은 ‘백가면과 유불란과 소년들’이 한 편이 되어 적국 스파이들³⁰⁾을 상대로 강박사를 구출하고 무서운 기계의 해외유출을 차단하는 이야기가 서사의 틀을 이루는 것이다.

적국의 스파이들로부터 강박사를 보호하는 백가면이 강박사를 은신시킨 곳은 강박사의 “황해가 연구소”이다. 강박사를 두고 백가면 일행과 적국 스파이들 간의 추격과 격투가 벌어지는 극적 갈등은 “진남포”³¹⁾ 부근의 “황해가 연구소”에서 전개되는 것이다. 경성에서 24시간이나 떨어진 진남포는 일제시기 황해를 접하고 있는 항구 중에서도 전략적 요충지였다.³²⁾ 바다로 잠입한 적국

29) 김내성, 『少年』, 1938년 1월호, 86쪽.

30) 『少年』에 게재된 판본에는 적국 스파이들이 중국, 영국, 러시아 사람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중국사람의 뒤로 두 사람의 수상한 서양사람이 또 들어왔습니다. 그 서양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영국사람이요 또 한 사람은 러시아 사람입니다.”(『少年』 1938년 2월호, 70쪽) 1937년 당시 일본이 대립하고 있던 국가를 직접 제시, 현실 세계의 정치적 갈등이 허구적 세계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김내성의 소설에서 등장하는 ‘모험은 현실적 필요에 의해 구성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1951년 판 단행본의 경우는 “적성국가 스파이”로 간단하게 개정되어 있다.

31) 『少年』의 판본과 달리 1951년 단행본에는 진남포가 아닌 인천행 기차를 타고 다시 자동차로 가는 곳으로 제시되어 있다.

32) 진남포는 청일전쟁(1894-5)때 일본군의 대병력이 상륙하여 병참기지가 된 후 1908년 이후 진남포항이 설치되었고 1915년 조선 최초의 제련소가 건립되었다. 진남포는 무역항이자 군항으로 중국, 일본과의 무역거래가 활발했으며 1936년 장항제련

의 스파이들이 비밀무기의 유출을 시도하는 곳이 진남포의 바닷가 연구소는 설정은 바다를 경로로 전개되는 국가 간의 대립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³³⁾ 『백가면』에서 문물의 유입과 진출이 활발한 바닷가는 국가적 갈등을 내포하는 공간으로 활용되며 이때 바다는 국가의 경계, 영해의 의미로 한정된다. 근대 초기 최남선이 소년의 도전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주목했던 바다가 무한한 가능성과 기회의 공간을 상징하는 것이었다면³⁴⁾,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후 김내성의 바다는 배타적 영해가 된다. ‘영해’는 국가 간의 갈등과 긴장의 전선인 정치사회적 공간인 것이다. 황해가 진남포 부근에 위치한 강박사의 연구소는 다음과 같이 묘사된다.

“절벽 위에 마치 무슨 고성과 같이 시껌땡게 솟아 있는 커다란 양옥... 끊임없이 꺾뺨뺨뺨하는 불빛의 신호를 내보내고..”(174-174)

“강박사가 연구해 놓은 기계”가 장치되어 있는 “황해가 연구소”는 군사기지(基地)의 모습을 하고 있다. 국가의 전략적 요충지인 황해 진남포에 자리잡은 군사기지에는 세계가 두려워하는 “무서운 기계”가 제작되고 있는 것이다. 이 “무서운 기계”를 쟁탈하기 위해 적국의 스파이들이 바다로 잠입해 들어오고 이를 막기 위해 전세계를 떠돌던 백가면은 경성에 몰래 들어와 유불란 일행과 함께 적성국가 스파이들의 준동을 섬멸하는 이야기가 『백가면』인 것이다.

그러니까 『백가면』은 미성숙한 소년들이 이별했던 아버지들과 해후하는 서사적 골격에 적성국가의 준동으로부터 국가 이익을 수호하는 갈등의 구조

소 건립 이전까지 조선 금속 생산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 곳이었다.

33) 이같은 설정은 김내성의 치밀한 계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소설이 발표될 당시 김내성은 29세였다. 인물의 행동, 심리와 관련해 시공간의 치밀한 논리를 구축하는 능력이 뛰어났던 그의 추리소설들을 염두에 둔다면 그의 첫 장편소설인 『백가면』에서도 시공간의 전개를 치밀히 계산하여 설정하였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34) 권보드래, 『『소년』과 톨스토이의 번역』, 『한국근대문학연구』, 6권2호, 2005, 71쪽.

를 결합함으로써 ‘안정적인 질서의 회귀’를 형상화하고 있다. 아버지와의 해후가 적성국가의 스파이들을 섬멸해야만 가능하다는 서사적 논리는 소년들에게 난해한 ‘국가 이익’이라는 개념을 자연스럽게 내면화시킨다. 해외를 떠돌다 강영제 박사를 보호하기 위해 국내로 잠입한 백가면이 자신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대준이 “그 용감하고도 사나다운 성격을 가진 백가면을 아버지로 섬긴다는 기쁨이 용솟음침을 전신에 느끼는”(151) 감동의 장면은 애국심의 내면화 과정을 보여준다. 아버지를 구출하기 위한 모험은 국가의 이익 수호와 직결된 애국적 모험이기도 한 것이다. 『백가면』의 소년들이 펼치는 이같은 정치사회적 모험은 안정된 가정과 국가의 수호가 “일체(一體)”라는 인식으로 완결된다.

“파도높은 황해바다 위로 황금색 햇살이 넘실넘실 기어오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중략) 대자연이 짜아내는 이 커다란 사랑 앞에는 어둠도 없고 슬픔도 없고 싸움도 없고 시기도 없고 질투도 없습니다. 광명의 나라! 희망의 세계!”(192)

영해(領海)인 “황해바다”를 지켜내고 아버지와 해후한 주인공들이 ‘환희’를 체험하게 되는 것은 안정된 질서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백가면』은 황해바다를 배경으로 혼란스러운 국제 정세 속에서 안정적 질서를 회귀하는 당시의 정치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영해로서의 “황해바다”를 수호한 소년의 모험은 황해 너머 바다로도 확장된다. 국내 정세의 안정뿐만 아니라 해외로의 진출을 위해서도 소년의 모험이 활용되는 것이다. 1930년대 후반 식민지 조선의 소년들을 흥분시킨 ‘바다로의 모험’은 식민 권력의 정치사회적 요구를 내포하고 있었다.

4. 공해(公海)로의 진출과 제국주의의 시선

『백가면』이 황해바다를 경계로 전개되는 소년의 모험을 통해 국가와 가족의 안정된 질서를 회귀하고 있다면, 『황금굴』은 고아 소년들을 황해너머 공해상으로 진출시켜 모험의 정치사회화를 구상한다. 유불란과 함께 고아소년들이 인천을 출발하여 동지나해, 대만해협을 지나 남지나해, 보르네오섬을 거쳐 도착한 곳은 인도 남해의 보물섬 계룡도이다. 황해 너머 모험의 종착지는 인도인 것이다. 보물의 암호풀이, 인도인 해적의 납치와 탈출, 거친 바다의 항해가 순차적으로 이어지며 소설의 흥미와 호기심이 배가되는 『황금굴』에서 주목할 점은 ‘인도’와 ‘인도인’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와 설명이다.

“인도에서 제일 깨끗하고 신선한 강은 벵갈만(灣)으로 흘러내리는 간디스란 강입니다”하고 대답하였습니다. 유탐정은 “그렇다. 간디스라는 강이다”하고 가장 유쾌한 듯이 외쳤습니다. 독자제군, 제군은 학교에서 지리시간에 가아라든가 베나레스라든가 아라하비아드라는 도시(都市)가 모두 이 간디스강변에 있는 것을 배웠을 것이며 따라서 이 가아, 베나레스, 아라하비아가 모두 인도교(印度敎)의 성자(聖地)라는 사실도 선생님께 배웠을 것입니다. 거기는 인도교의 절(寺)이 수천개나 되고 그절에 기도하러 각처에서 모이는 사람이 연년 수백만이나 된다고 합니다.³⁵⁾

유불란과 소년들이 보물섬의 암호문을 해독하는 과정에서 인도의 지리와 문화는 학교의 지리시간처럼 소개되고 있다. <그림 1>에서 보듯 당시 『동아일보』에 연재되던 『황금굴』은 인도의 지리적 이해를 시각적인 방식으로도 도모하고 있는데, 생경한 이국문화야말로 소년독자들이 선호하는 관심거리였다. 물리적으로 먼 거리와 낯선 문화의 대표적 지역인 인도는 『황금굴』이 발표되기 10여 년 전부터 조선사회에서 관심을 갖던 지역이었다. 1920년대부터 조선의 신문과 잡지에서는 인도 여행기를 자주 소개하였다.³⁶⁾ 식민지 조선에

35) 김내성, 『황금굴』, 11. 풀리는 암호문(2), 『동아일보』, 1937.12.2.

서는 인도를 “시, 종교, 철학의 나라”로 파악하고, “야자나무 그늘 아래 빈랑 나무 향내 아래 파초씨 흐늘어진 그 땅”이라며 동경하였다. 그리고 “석가모니로 인하여 존중심을 가지고, 타고르로 인하여 많은 애착심을 가지고 간디로 인하여 동정심을 가지고, 동병상련하는 마음을 느³⁷⁾꼈던 곳이 인도였다. 당시 조선에서는 이국적 자연환경과 종교적 독특함 때문에 인도를 호기심과 동경의 세계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식민지 조선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온 인도를 『황금굴』은 1937년에 소년독자들에게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그림 2>는 인도인을 바라보는 당시 조선인이 지녔던 시선의 정체를 확인해 준다.



그림 1. 『황금굴』 삽화,
『동아일보』 1937.1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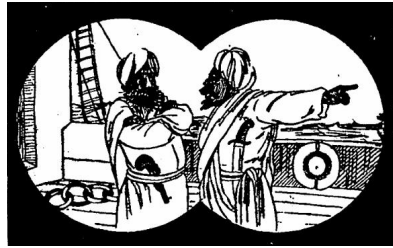


그림 2. 『황금굴』 삽화,
『동아일보』 1937.12.10.

36) 당시 많은 기행문에 인도양을 여행한 내용이 소개되었다. 인도양은 조선에서 유럽으로 가는 뱃길이었다. 상해와 싱가포르를 거쳐 인도양을 지나며 경유하는 실론도는 기행문에 자주 등장하였다. -이옥순, 『식민지 조선의 희망과 절망』, 푸른역사, 2006, 181-197쪽. 김내성은 자신의 소설에서 인도인과 인도양을 자주 등장시키고 있다. 『태풍』에서는 인도양을 경유하는 선박여행이 묘사되고 『걸리버여행기』의 번안소설인 『꿈꾸는 바다』는 인도로 무역나갔던 한국 상선 계림호가 풍랑을 만나 모험을 하게 되는 이야기이다. 『백가면』에서 대준의 아버지이자 백가면인 박지용은 세계각국으로 장사를 하러 돌아다니다 인도 실론섬 부근에서 해적에게 납치되었던 것으로 나온다.

37) 『조선일보』, 1926. 2.11.

<그림 2>는 『황금굴』의 『동아일보』 12월 10일 연재분에 실린 삽화이다. 보물섬을 찾아가던 도중 태양호 선장이 건넌 망원경으로 유블란이 인도인을 바라보는 내용을 그린 것이다. 『황금굴』에서 인도인 해적들은 “얼굴을 시검 어케”하고 “머리에다 타반을 쓰고 긴 만또와같은 의복을 몸에 들은” “무서운”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이 묘사는 삽화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황금굴』에서 묘사되고 구체화된 인도인의 모습은 당시까지 조선의 지식인들이 상상하던 인도인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조선 지식인들은 서구 문학과 서구에서 기원한 지식을 통해 인도를 적도 부근의 뜨거운 나라로 상상하며 “인도라면 태양 적도 밑에 있는 제일 뜨거운 나라로 검둥이라면 무엇보다 그 나라 사람을 연상하게 되는 것만큼 그들은 세계에서 제일 검은 인종”³⁸⁾으로 생각했다. 동양의 유색인인 조선인이 피부색에 대한 백인 중심의 편견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었던 것이다. 인도를 신비와 동경의 나라로 이해하면서도 인도인들을 검은 피부색의 무서운 인종으로 인식하고 있는 『황금굴』의 내용은 유럽인들이 인도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호기심과 편견이 조선인들에게 전이되어 표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동양을 바라보던 유럽인의 이중적 시선을 추종하고 있는 『황금굴』이, 미지의 보물은 먼저 발견한 자가 쟁취한다는 제국주의의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논리적 귀결이다.

황금굴

그것은 누구의 것이냐

발견하는 사람의 것.

“황금굴이다! 황금굴이다!”

“만세! 만세!”

사람들은 저마다 기뻐서 손뼉을치며 부르짖었습니다.³⁹⁾

38) 『조선일보』, 1930. 1. 3.

39) 김내성, 『황금굴』, 19. 황금굴(2), 『동아일보』, 1937. 12. 25.

조선의 고아들인 학준일행은 인도인 해적들의 추격과 난파의 위험을 무릅쓰고 도착한 보물섬에서 황금굴을 찾았다. 보물은 어디에 있건, 보물이 무엇이건 용기있게 발견하는 사람의 소유라는 인식은 근대문명을 무기로 식민지를 건설하고 이권을 강탈해간 제국주의의 입장과 다르지 않다. 더구나 이들이 찾은 보물은 인도지역의 권위와 역사를 상징하는 “인도 왕족의 황금왕관”이었다. 이같은 제국주의의 시선은 조선의 소외된 약자인 고아들의 용기있는 모험으로 은폐되어 고아에 대한 동정적 시선을 가진 소년독자들에게 제국주의 논리를 내면화하도록 만든다.

“울지, 그 돈을 가지고 훌륭한 고아원을 세우자. 백화점처럼 커다란 집을 지어놓구 그리고 전조선에서 불쌍한 아이들을 죄다 모아다가 공부도 시키고 운동도 시키고...”⁴⁰⁾

난파의 위험과 인도인 해적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인도의 계룡도에 묻혀있는 보물을 찾아떠나는 학준 일행은 모두 고아였다. 모험에 참여하는 고아 소년들은 바다로 나아가 “부모의 사랑보다 한층 더 굳세인 힘을 이 대자연 속에서 느낀다. 그들은 이 모험을 통해 자신들의 처지를 비판하거나 동정하지 않

40) 김내성, 『황금굴』, 4. 무서운 인도인(1), 『동이일보』, 1937. 11. 11. 그런데 1973년 이리광사 판은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난 절반은 나라에 바치고 그리고 절반은 우리들과 같이 부모없는 불쌍한 아이들에게 나누어 줄테야.” “울지, 꼭 방헌금을 하고 남은 돈을 가지고 훌륭한 고아원을 세우자. 백화점처럼 커다란 집을 지어놓구 그리고 전국에서 불쌍한 아이들을 죄다 모아다가 공부도 시키고 운동도 시키고...”(28쪽) 『동이일보』 본과 달리 밑줄친 부분이 첨가되었는데 『황금굴』이 단행본으로 처음 발간되었던 1944년 7월에 이 내용이 삽입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밑줄 친 부분은 일제 말기 동원 체제를 의식한 내용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삽입된 내용은 해방후 간행되는 단행본에서도 삭제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식민지 말기와 1970년대가 집권세력의 성격이 다르고 정치체제도 판이하지만 ‘국가동원을 강요하는 체제’라는 공통점이 있었다. 한국전쟁 이후부터 1970년대까지 국가동원체제가 작동하는 사회에서 이같은 내용은 지배권력의 정치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어서 환영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을 뿐만 아니라 보물을 얻기 위해 진취적인 모습으로 묘사된다. 애상적이며 동정의 대상이었던 과거 고아의 이미지⁴¹⁾와 달리 이 소설에서 고아는 적극적인 모험의 주체로 제시되어 소년독자들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효과적으로 활용된다. 이국적 지역을 답사하는 고아들의 흥미진진한 모험은 물질적 성취로 완결되고 공해(公海)상 미지의 세계에서 획득된 부는 사회적 선행을 위해 사용될 것이 예고됨으로써 제국주의의 논리는 자연스럽게 은폐되는 것이다.

신비적 호기심으로 인도를 다루면서도 그 배면에 제국주의의 욕망을 실현하는 『황금굴』의 정치사회적 맥락은 식민지 후반 김내성의 『태풍』(1942)에서 보다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기업승 동양의 노대국” 인도의 찬란했던 고대 종교미술을 답사하는 유불란이 앵글로색슨의 악마성을 폭로하고 영국인에게 굴종하는 인도인의 무지와 야만성을 질타하는 『태풍』은 황해를 거점으로 인도양을 포괄하려는 대동아 단결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서구적 근대가 몰락하고 동양이 세계의 역사를 새롭게 열 것이라는 역사철학적 신념으로 구축된 대동아공영의 논리로 보자면 인도인의 야만과 무지는 적성국 앵글로색슨을 이롭게 할 뿐인 반역사적인 행태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영국인의 하수인 역할을 할 뿐인 인도인들은 어리석은 악당이기에 때문에 동양의 문명국 인도의 신비한 문화와 역사는 앵글로색슨과 대립하며 동양의 순수를 구축하려는 새로운 세력이 수호해야한다는 논리로 이어진다. 동양의 거대한 문명국 인도를 정복하려는 정당성을 대동아공영론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김내성의

41) 1930년대 ‘고아’는 사회적인 문제였던 듯하다. 『어린이』 32년 7월호에는 「진조선에 고아 이만명」이라는 제목의 글이 실렸다. 1931년 5월 기준으로 2천만 조선인 구 중 6백만명이 어린이(19세까지)이며 그 가운데 2만명이 고아였다. 이는 어린이 중 3%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전쟁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생활의 궁핍함을 말해 준다. 이런 시대를 반영하여 고아는 소년소설의 주인공으로 자주 등장하였다. 1920년대는 식민지 현실의 민족적 애상을 ‘고아’에 투사하여 표현하였지만, 1930년대 고아는 실제적인 사회 문제였다. -전명희, 『한국 근대 소년소설 연구』, 영남대 박사학위논문, 1998, 47-48쪽. 참조.

『태풍』은 제국주의의 해양 확대 재편을 꿈꾸는 일본의 야욕에 대해 열렬한 환호를 보낸 것이었다. 인도를 신비와 야만의 이중적 시각으로 타자화하면서 정복의 논리를 내면화하도록 유도하는 『황금굴』의 모험은 일본 제국의 정치 사상논리를 토대로 구성되었던 대동아공영권의 환상으로 확장되었던 것이다.

5. 설화적(說話的) 공간으로서의 바다와 금전적(金錢的) 환상의 실현

김내성의 소년탐정소설에 나타난 모험의 정치사회적 요구는 8·15해방을 기점으로 소멸되고 만다. 제국주의적 환상의 몰락과 새롭게 재편되는 1950년대 국제 정세의 긴박감 속에서 김내성은 황해를 설화적 공간으로 변환함으로써 1950년대에 소년탐정소설을 안정적으로 창작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제 그의 소년탐정소설에서 바다는 경제적 부를 실현하는 환상의 공간으로 기능할 뿐이며 소년들의 모험은 물질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것으로 변화한다.

해방 후 김내성의 대표적인 소년탐정소설인 『황금박쥐』에서 갈등이 심화되고 해소되는 서사 공간인 ‘바다’의 표상은 앞선 작품들과 구별된다. 『백가면』의 바다가 ‘영해(領海)’로 한정되어 안정적인 질서를 회구하는 소년의 심리를 반영하였고 『황금굴』에는 ‘공해(公海)’로 진출하는 제국주의의 생리가 투사되어 있다면, 『황금박쥐』에서는 바다를 설화의 공간으로 환원하여 물질적 성취의 욕망을 실현하는 환상적 세계로 제시한다.

『황금박쥐』의 주인공 소년들이 보물을 찾아 떠나는 황해바다는 “심청이가 빠져죽은 장산곶 바다”⁴²⁾이다. 『황금박쥐』의 장산곶 앞바다는 해외 문물의 교류 경로도 아니고, 영해의 전략적 요충지도 아닌 심청이의 한이 서린 설화적 공간인 것이다. 장산곶 앞바다 중에서도 보물이 숨겨진 곳이 “도깨비섬”의

42) 김내성, 『황금박쥐』, 학원사, 1957. 304쪽. 이후 인용문에 쪽수 표시.

“벼락맞은 나무” 속으로 제시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소년들은 보물을 찾기 위해 현실적 공간에서 설화적 공간으로 이동하는 모험을 감행하고 있는 것이다.

김내성의 소년탐정소설이 설화적 공간으로 전환한 것은 공고한 이념의 기반을 상실한 그가 채택할 수 있는 작가적 선택으로 보인다. 식민지적 상황과 달리 해방후 1950년대는 세계 정세가 새롭게 재편되는 시기였다. 이승만 정권이 집권하며 반공국가로서의 자기 구성을 시도하고, 미국 헤게모니의 자장 내에서 국가적 위상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국가적 자기 정체화의 기획으로 전개되던 시기가 1950년대의 상황이었다.⁴³⁾ 일본 제국의 몰락과 함께 제국주의적 환상은 몰각될 수밖에 없는 것이며 제국주의의 해양적 확대 재편을 열렬히 환호하였던 김내성의 소설은 그 방향성을 잃었던 것이다.

즉 1950년대 김내성의 소년탐정소설에서 등장하는 황해바다는 영해로서 규정되기 위험한 곳이었다. 강력한 식민제국의 몰락으로 해외 진출의 거점이었던 황해바다를 둘러싼 지역은 이제 이념적 대치의 초긴장 상태에 빠진다. 남한북한의 대립과 황해바다 건너 중공의 존재 역시 황해를 안정된 질서가 유지되는 영해로 규정하기에는 큰 부담이 존재하였다. 뿐만 아니라 황해바다를 근거로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조차 봉쇄되었고 그것을 가능하게 할 현실적인 세력도 소멸되었기 때문에 『황금박쥐』의 황해바다는 설화의 공간으로 환원되었던 것이다. 황해바다에서 정치사회적 모험을 펼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것이며, 이제 황해바다는 설화의 공간으로 환원되어 물질적 욕망을 환상적으로 실현하는 곳으로서 당시 대중적 기호에 부합하도록 재조정된다.

설화적 공간⁴⁴⁾으로의 모험은 소년주인공들이 현실적 공간인 서울에서는

43) 김예림, 「냉전기 아시아 상상과 반공 정체성의 위상학」, 『상허학보』 20집, 2007. 311-338쪽. 참조

44) 김내성은 『황금박쥐』를 『학원』에 연재한 후 바로 이어 전래동화를 변용한 『도깨비 김투』를 연재하다가 사망하였다. 이성과 과학을 토대로 구축될 수 있는 추리소설의 세계를 구성하였던 김내성이 말년에는 ‘설화적 세계’에 천착하였다는 점이

충족할 수 없는 물질적 부에 대한 환상을 실현가능하게 한다. 바다 한가운데 보물섬에서 발견하는 보물이란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환상이며 설화적 공간에서나마 욕망하는대로 발견할 수 있을 뿐인 것이다.

보물상자를 여니 황금, 다이아몬드, 비취, 진주목걸이가 가득(360)

황해바다에서 찾아낸 보물 상자에는 다양하고 화려한 보석이 가득 담겨 있다. 소설 속 소년들이 발견한 화려한 보물상자는 소년독자들의 물질적 환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황금굴』에 등장하는 인도 왕족의 황금왕관과 달리, 『황금박쥐』에서는 보물에 얽힌 내력이나 역사의 상징성은 찾아볼 수 없다. 소년들의 물질적 부에 대한 환상을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한국전쟁 후 가치와 윤리가 붕괴된 폐허의 한국사회에서 금전적 욕망은 필연적이었다. 1950년대에 미성숙한 소년들조차 금전적 부의 필요성을 절감하였음을 『황금박쥐』는 보여준다. 금전적 부에 대한 욕망은 현실 공간에서 성취되기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모험을 무릅쓰고 도달한 설화적 공간에서 실현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김내성은 식민지 후반 정치적 상황과는 판이하게 전개되는 1950년대 사회적 상황이 혼란스러웠던 듯하다. 전후 소년소설 시장의 수요 때문에 소설의 집필을 중단할 수 없었던 김내성으로서는 정치사회적 맥락과 연결된 치밀한 구성력을 1950년대 소년탐정소설에서 발휘할 수 없었다. 그래서 식민지 시기 발표했던 작품들의 주요 모티프를 활용하여 소설을 구성하고⁴⁵⁾ 명료하게 파

흥미롭다.

45) 해방 후 김내성의 소년탐정소설은 식민지 시기 발표한 『백가면』과 『황금굴』의 주요모티프들을 혼합하여 창작되었다. ‘보물을 얻기 위해 바다로 떠나는 모험’ 이 야가 김내성 소년탐정소설의 구성적 관습으로 정착되었음을 보여주는 작품이 『황금박쥐』이다. 『황금박쥐』는 중학생인 문철과 학길이가 고이인 이쁜이와 함께 황해바다에 숨겨진 보물을 찾아가는 이야기이다. 부모와 살고 있는 소년들과 고이인 소녀가 함께 바다의 보물섬을 향해 모험여행을 떠나며, 보물의 암호를 풀기 위해 소년

악하기 힘든 국내외 정세의 혼란 때문에 “황해바다”는 정치사회적 맥락을 탈각시킨 채 설화의 세계로 제시되는 것이다.

그러나 설화적 공간에서나마 모험으로 성취한 금전적 부를 사회적 선행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당위를 제시함으로써 김내성은 소년탐정소설의 서사적 흥미를 이상적 주제와 조합한다.

헤일 수 없을 만큼 수많은 돈이 우리의 손에 들어온다. 그것을 나라에 바치자. (중략) 그 돈으로 커다란 훌륭한 고아원을 지어서 수많은 전쟁고아를 수용하여 우리 들처럼 공부를 시키면 얼마나 좋으냐! (중략) 전쟁고아원도 좋지만, 나는 그보다 먼저 상이군인과 그의 가족을 먹여살리는 훌륭한 기관을 만들고 싶다. (87)

『황금박쥐』는 소년독자들에게 전쟁 후의 경제적 궁핍과 고단한 상황에서 도 공동선(共同善)의 유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는 비록 설화적 세계에서 강화되고 실현되는 금전적 욕망이라 하더라도 사회적 요구와 윤리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관념이 내포되어 있다. 경제적 궁핍의 해결이 지상과제였던 1950년대에 사회적 요청에 충실한 이상적인 소년상을 제시하여 소년독자의 흥미와 시대적 요구를 절충하고 있는 것이다. 환상의 세계에서조차 사회적 요구와 지배적 이념은 소년들의 욕망을 제어하며 소년들에게 내면화되었던 것이다.

5. 결론

한국 근대추리소설의 선구자로 알려진 김내성은 식민지시기부터 1950년대

들의 기지가 발휘된다는 점에서 앞선 소설의 주요모티프가 혼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보물을 두고 악당인 황금박쥐와 경합을 벌이는 모험담과 획득한 보물을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사용한다는 설정 역시 낮이다.

까지 많은 소년소설을 창작하였다. 그의 소년소설은 근대적 의무교육제도의 시행과 확대로 증가한 소년독자층에게서 폭넓은 인기를 얻었다. 김내성의 소년소설은 통속적이고 상업적이라고 평가되어 그동안 연구사에서 소외되었으나, 김내성 작품의 체계적인 인식과 작가적 특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명되어야 할 연구대상이다. 따라서 본고는 김내성의 작가의식 규명을 위해 그의 소년탐정소설에서 중요한 공간으로 설정된 ‘바다’ 표상을 분석하였다.

김내성의 첫 번째 장편소설인 『백가면』(1937)은 표면적으로는 소년 주인공이 부친과의 상봉을 위해 모험을 감행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으나 그 이면에는 국가 이익의 수호를 내면화하는 과정이 중첩되어 있다. 황해바다를 사이에 두고 적성국가 스파이들과 대결을 벌이는 소년들의 모험은 소년의 성숙으로 귀결되기보다는 국가이익의 수호를 완수하는 정치사회적 성격을 내포한다. 『백가면』은 황해바다를 국가 영토의 일부분으로 인식하고 혼란스러운 국제정세 속에서 안정적 질서를 희구하는 당시의 정치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백가면』이 안정된 질서를 염원하는 국내적 요구를 형상화하고 있다면 『황금굴』(1937)은 고아 소년들을 주인공으로 제국주의적 욕망을 실현하고 있다. 황해를 거점으로 인도양으로 진출하는 이 소설에서는 동양의 문명국인 인도를 바라보는 식민지 조선의 시선에서 제국주의적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인도를 이중적인 시각으로 타자화함으로써 정복의 논리를 내면화하도록 유도하는 『황금굴』의 기저에서는 식민지후반 일본 제국주의의 신념이었던 대동아공영론을 발견할 수 있다. 식민지 시기 김내성의 소년탐정소설은 당시 소년독자들에게 흥미진진한 서사의 재미를 제공하면서 그 이면에 당시 일본 제국주의의 정치사회적 요구를 모험의 방식으로 실현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김내성의 소년탐정소설에 나타난 모험의 정치사회적 요구는 해방을 기점으로 소멸되고 만다. 제국주의적 환상의 몰락과 새롭게 재편되는 국제정세의 긴박감 속에서, 김내성은 『황금박쥐』(1955)의 황해를 설화적 공간으로

변환함으로써 소년소설의 창작이라는 대중적 요구를 충족시켰다. 이제 그의 소년탐정소설에서 바다는 경제적 부를 실현하는 환상의 공간으로 기능할 뿐이며 소년들의 모험은 물질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것으로 변환된다. 여기에 사회적 요청에 복무하는 이상적 소년상을 조합함으로써 김내성의 소년소설은 당시의 소년독자층의 흥미와 시대적 요구를 절충할 수 있었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김내성, 『백가면』, 평범사, 1951.; 『소년』, 조선일보사출판부, 1937.6.-1938.5.
김내성, 『황금굴』, 아리랑사, 1973.; 『동아일보』, 1937.11.1-1937.12.31.
김내성, 『황금박쥐』, 학원사, 1957.
김내성, 『태풍』, 『동아일보』 1942.11.21.-1943.5.2.

2. 논문과 단행본

- 권보드래, 「『소년』과 톨스토이의 번역」, 『한국근대문학연구』, 6권2호, 2005, 71쪽.
김부연, 「한국 근대 소년소설 연구」, 건국대석사학위논문, 1995.19-25쪽.
김영희, 「제1공화국 시기 수용자의 매체 접촉경향」, 『한국언론학보』, 47권 6호, 2003. 312쪽.
김예림, 「냉전기 아시아 상상과 반공 정체성의 위상학」, 『상허학보』20집, 2007. 311-338쪽.
김종수, 일제 강점기 경성의 출판문화 동향과 문학서적의 근대적 위상-한성도서주식회사의 활동을 중심으로」, 『서울학연구』 35, 2009. 245-272쪽.
리첸지, 「대위시절의 김내성」, 『판타스틱』, 2009. 봄호 184-209쪽.
박진영, 「김내성의 연보 및 작품목록」, 『판타스틱』, 2009. 봄호, 167-183쪽.
선안나, 「1950년대 동화아동소설 연구」, 성신여대박사학위논문, 2006.87-108쪽.
심명숙, 「한국근대아동문학론 연구」, 인하대석사학위논문, 2002.62-63쪽.
오옥환, 『한국사회의 교육열:기원과 심화』, 교육과학사, 2000.
윤정원, 「한국근대정기간행물에 관한 서지학적 연구, 1889-1945」,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28-123쪽.
윤종주, 「해방후 우리나라 인구 변동의 사회적 의미」, 『인구문제논집』 역사비평사, 1998, 52쪽.
이옥순, 『식민지 조선의 희망과 절망』, 푸른역사, 2006.
전명희, 「한국 근대 소년소설 연구」, 영남대박사학위논문, 1998.47-48쪽.
정혜영, 「방첩소설 매국노와 식민지 탐정문학의 운명」, 『한국현대문학연구』, 24, 2008. 281쪽
조성면, 「탐정소설과 근대성」, 『민족문학사연구』13, 1998, 351-352쪽.
조은숙, 「한국 아동문학의 형성과정 연구」, 고려대박사학위논문, 2005.16-53쪽.

천정환, 『근대의 책읽기』, 푸른역사, 2003.

최배은, 「한국 근대 청소년소설의 형성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27집, 2005, 370쪽.

최애순, 「1930년대 모험탐정소설과 김내성 『백가면』의 관계 연구」, 『동양학』 44집, 2008.1-24쪽.

Abstract

Representation of "Sea" in Kim Rae-sung's Detective Stories for Boys

Kim, Jong-Soo

Kim Rae-sung has also written many stories for Boys from 1937 to being died, even though well-known as a pioneer of mystery stories in Korea under Japanese Colonialism. This article explored the writer's problematic consciousness with analyzing representation of "Sea" main space of several detective stories for boys.

It is with adventure for politic-social purpose that *White Mast*[Baik-Gamyeon] let readers perceive Yellow Sea as the closed sea for stable nation situation under messy international power game in East Asia, published in magazine *Boy*[Sonyun] at 1937. *Gold in Cave*[Hwangeum-Gul] actualized desire of imperialism with orphans character to go the open sea to India that described to glory civilized country and barbarous region with view of the Greater East Asia Co-Prosperity Sphere, serialized in newspaper *Donga-ilbo* at 1937.

Golden Bat[Hwangeum-Pakjui] has been transformed to "Sea" into legendary space for materializing economic desire in the 1950s, negotiating demands between boy readers and adults. (Keywords: Kim Rae-sung, Detective Stories for Boys, Representation of "Sea", Legendary Space, Adventure for Politic-Social Purpose, Yellow Sea, the Closed Sea, the Open Sea, the Greater East Asia Co-Prosperity Sphere, India, *White Mast*[Baik-Gamyeon], *Gold in Cave*[Hwangeum-Gul], *Golden Bat* [Hwangeum-Pakjui])

▣ 위 논문은 2009년 4월 30일 투고되었고, 심사를 거쳐 5월 25일 게재가 확정되었음.